

민자 유도·GPU 확보·전력 공급…AI, 구체적 청사진 안 보인다

‘하겠다’는 있고 ‘어떻게’는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산업 기반을 떠받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와 인재 확보, 기술 전략 등 구체적인 청사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AI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구축하고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GPT를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 20만 명 육성, AI 전문대학 확대, 글로벌 AI 융합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민간 투자 유도 방안 등에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경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조기 대선으로 디테일한 공약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AI에 대해서 미국과

‘국가 성장 동력’ 무조건 투자 기술·인재 확보 방안은 빠져

“제조업부터 모든 분야 활용 우리 산업 맞춤형 접근 필요”

중국처럼 무조건적인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성장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기 대구디지털진흥원 원장은 “GPU는 돈을 주고 사면 되지만 이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며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AI 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 공급 대책도 빈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과 HVDC(초고압직류송전망)를 연결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했지만 ‘개념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송전선로’ 등 굵직굵직한 송배전망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AI



생태계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덕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는 “AI 산업은 인프라, 인력양성, 연구개발을 모두 잘 엮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민간기업 투자를 우리

민주당	이재명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목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이행방안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글로벌 최첨단 AI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국민의힘	김문수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목표
	이행방안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나라는 따라가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AI 인재 육성 방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가 내세운 20만 명 인재 육성 계획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과 큰 차

별성이 없고, 이재명 후보의 인재 양성 공약도 구체적 교육 체계나 산업 수요 연계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장은 “AI 산업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AI는 제조

업부터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결국 각 기업, 산업에서 자신에게 맞는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경석 기자 newnks@maeil.com

정부, 1.5兆 투입 ‘엔비디아 GPU 1만장’ 확보

‘AI 칩’ H200·B200 우선적 구매 10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 SPC 공모 산학연 기관·LLM 기업에도 배분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칩 대표주자인 엔비디아의 H200과 블랙웰(B200) 제품을 6대4 비중으로 구매해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조4천6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H200 6천400장과 B200 3천600장을 우선 확보한다. 다만 GPU 운용 주체들의 선호도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모델 종류와 구매 비중은 조정될 수 있다.

GPU를 운용할 클라우드 기업(CSP)은 이달 중 공모로 선정한다. 7월 중 협약 체결 후 즉시 구매 발주에 착수, 선정된 클라우드사의 데이터센터에 GPU를 순차 구축해 10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개시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 GPU 활용을 주도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참여 계획을 밝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한다. 컴퓨팅 센터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공모는 이달 말까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대기업업을 제외한 산학연 기관 405곳을 대상으로 GPU 수요 조사를 한 결과 ‘GPU 자원이 6개월 이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이 45.9%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5곳 중 4곳이 1년 이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설립되면 구매한 GPU를 이관해 국내 산·학·연 기관의 AI 관련 연구와 국가대표 AI 개발사로 뽑힌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기업에 우선 사용권을 줄

방침이다. 사용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귀속되며,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 일부 자체 활용도 허용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는 기존 계획대로 비수도권으로 하되, 정부 구매 GPU는 타 부처에서도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가 GPU 수급난을 겪는 상황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부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공급망을 다각도로 조율하며 조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측과 GPU 확보 관련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삼성, 2.4兆 들여 ‘獨 공조 업체 플렉트’ 인수

‘AI 대비’ 8년 만에 조 단위 투입 65개국 7억 유로 매출 산출 데이터센터·가가팩토리 등 강화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兆)단위의 인수를 단행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가가팩토리 등 대형 산업시설 중심의 공조 사업의 영역을 대폭 넓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플렉트)의 지분 100%를 15억 유로(약 2조3천76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918년 설립된 플렉트는 65개국의 가정, 사무실, 학교, 병원과 첨단 시설에 중앙 공조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해 7억 유로 이상의 연 매출을 내는 글로벌 공조 업체다.

삼성전자가 공조 업체에 주목한 것은 최근 불어닥친 AI 열풍과도 무관하지

삼성전자 최근 주요 기업 인수합병·투자 이력	인수·투자 규모
2025년 5월 독일 공조 플렉트그룹	15억 유로 (약 2조 4,000억 원)
2025년 5월 미국 오디오 마시모(오디오사업부)	3.5억 달러 (약 5,000억 원)
2024년 12월 한국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2,674억 원 (주식양수도 대금 기준)
2024년 7월 영국 AI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비공개 (수백억원대 추정)
2024년 5월 미국 공조 레녹스(합작법인)	비공개 (삼성전자 지분 50.1%)
2024년 5월 프랑스 메드텍 소니오	약 1,300억 원
2023년 11월 미국 오디오 룬	비공개
2016년 11월 미국 전장·오디오 허만	80억 달러 (당시 약 9조 3,400억 원)

(자료: 삼성전자) 연합뉴스

않다.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AI 후방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며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로봇·자율주행·확장현실(XR)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플렉트를 전격 인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따르면 공조 사업 중 공항, 소규모, 공장 등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은 2024년 610억 달러에서 2030년 990억 달러로 연평균 8% 성장이 전망된다. 이 가운데 데이터센터 부문은 2030년까지 44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이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플렉트는 데이터센터 외에도 글로벌 톱 제약사, 헬스케어, 식음료, 플랜트 등 60개 이상의 폭넓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발굴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태 기자 next@maeil.com

김천팍 앤 장터



김천

앤

 자두



샤인머스켓

